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.

모욕적인 말과 무례한 행동,

"하는 것도 없이 정부지원 받아 혜택을 누린다."와 같은 욕설과 성인에게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등 무례한 태도에 시달린다.

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항상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존재라는 차별적 인식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.

도와주려는 마음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